

보도일시	2025.5.17.(토) 즉시 배포
담당처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후보 총괄특보단(단장 : 안규백)
담당자	박영화 팀장(010-4652-0520) / 김윤진 팀장(010-5672-8877) / 나호선 팀원(010-9073-1328)

"대한민국 국방비전 뒷받침 할 천군만마(千軍萬馬) 집결"

후보 총괄특보단, <국가안보특보단> 임명장 수여식

- 부승찬 국회의원 ·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공동단장
- 백군기 전 용인시장 ·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등 고문 위촉
- 내란사태로 인한 상흔덜고 진정한 국방력 회복을 위한 새출발 도모
- 안규백 단장, "건강한 한미동맹, 미래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에 힘 보태주시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은 17일(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국방안보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대한민국 안보 전략 수립과 군의 미래 비전 정립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국방안보특보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

□ 국방안보특보단은 부승찬 국회의원과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공동단장을, 4성장군 출신의 백군기 전 용인시장과 문재인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예비역 해군대장 등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 부승찬 단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군 내 작전 및 전략기획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와 국방개혁 추진에 깊은 이해를 갖춘 국방 전문가이며, 부석종 단장은 해군 최초의 제주 출신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면서 한미연합 해상작전과 해양전략 분야에 정통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 또한 고문으로 위촉된 백군기 전 용인시장은 35년간 군에서 복무한 예비역 대장으로 군 조직의 복지와 인권 개선, 부대 체제 정비, 수도권 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했으며,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문재인정부 시절 '국방개혁 2.0'을

주도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 마련, 병영문화 개선 등 국방 전반의 구조 혁신을 위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자리는 12·3 내란의 상흔을 딛고 국민의 충직한 군대라는 국방의 본령을 회복하고, 대내외적인 국방의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 라고 강조하면서 “건강한 한미동맹, 미래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는다” 고 당부했다.

□ 국방안보특보단은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강한 안보와 평화 공존' 기조에 맞춰 정책 제안과 대국민 소통, 안보 공약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끝>

※ 별첨 : 행사사진

